

아르누보와 아르데코 양식이 현대패션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이 순 홍 · 제 윤*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The Study on How Art Nouveau and Art Deco's Influenced on Modern Fashion

Soon-Hong, Lee · Yoon Je*

Sungshin Women's University Dept. of Clothing professor
Sungshin Women's University Dept. of Clothing*

ABSTRACT

The influences of Art Nouveau and Art Deco are as follow :

The first, in the side of silhouette, hourglass style and bell shaped skirt influence on mordern fashion chiefly and S-curve style was mollified.

Empire style, hobble skirt, minaret style, kimono style, harem style, boyish style in art deco age are all showed diversely, in these styles especially boyish style give an outstanding trasts to modern fashion.

The second, the color of art deco, characterized by pastel in art nouveau's color tone, original color and black and gold was reflected on the textile design and showed diversely in the color of modern fashion.

The third, in the field of textile and pattern, flower and plant which was a motive of art nouveau style, organic curve and geometrical pattern and exotic motive was seperately used with motive in the pattern and design of mordern. Textile of goldish and silver tone, metal stuff, lace, embroidery, fur, artifical flower, feather etc, showed up on the many parts of clothing.

Like this Art Nouveau and Art Deco style not only had a great effect on the costume but also decorations and formative arts.

Key Word : art nouveau(아르누보), art deco(아르데코), silhouette(실루엣),
color(색채), textile(직물), pattern(문양)

I. 서론

아르누보(Art Nouveau) 양식은 새로운 예술로서 유티미주의 및 상징주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여러면에 걸쳐 전개되었는데 그 형태는 자연의 유동적 형태들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직선보다는 소용돌이 치고 서로 교차하는 곡선을 주로 사용하였다. 또한 인상주의에 의해 형성된 부드러운 면에서도 환한 파스텔 색조가 주조를 이루어 환상적이며 상징적 표현을 나타내었다.

이후에 등장하는 아르데코(Art Deco) 양식은 기능주의에 자극을 받아 기능성과 단순화를 추구하는 직선미와 기하학적인 특성과 함께 유선형의 매끄러운 선의 특성도 나타냈다. 강하고 단순한 형상을 적절히 표출하기 위해서 원색과 검정 그리고 금·은색의 색을 사용하여 강렬하고 뚜렷한 색채 대비를 구사하였다.

이렇게 서로 대조적인 특성을 지닌 아르누보와 아르데코 예술양식의 특성을 고찰하고 그 시대의 복식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조사 분석하여 아르누보와 아르데코 양식이 현대패션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이해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범위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까지이며, 연구방법은 아르누보와 아르데코 양식 및 패션에 관한 서적을 중심으로 사상, 문화, 미술, 디자인 등에 관련된 문헌들과 현대패션의 흐름에 관한 문헌, 논문, 패션전문지도 참고하였다.

근대복식에서 현대복식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시기의 예술양식인 아르누보와 아르데코 양식에 대한 연구로 현대복식의 상황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미래복식이 나아갈 방향을 정립해 보고자 한다.

II. 시대적 배경

1870년대를 시작으로 제1차 세계대전에 이르는 시기의 세계는 비교적 평온한 국제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였다.

이리하여 이른바 제국주의 시대가 전개되기 시작하였고 영국, 프랑스, 독일의 강대국들은 산업발전에 의한 새로운 시장개척과 원료공급의 확보를 위해 식민지 쟁탈에 나서게 되었다.¹⁾ 이렇듯 세기말은 강대국들의 식민지 침략은 있었으나 급진적인 과학의 발전등 사회전반에 걸쳐 물질적으로나 이성적으로 풍요로운 시대였다.²⁾

18세기 초부터 시작된 기성복의 시도는 19세기 말에 이르러 기성복 체제가 잡히고 모든 생산면에서 기업화라는 추세를 가지고 왔다.³⁾ 특히 미국에서는 기성복의 발전이 더욱 활발하였는데 이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풍족한 원료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제품의 대량생산화는 복식도 다른 제품과 같이 양의 증대와 형의 규격화라는 특징을 가져왔으며 또한 의복을 저렴하게 하여 대중의 의복 구입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제까지의 산업은 거의 여성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았는데, 차츰 그 규모를 확장함에 따라 여자의 노동력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오랫동안 집안에 갇혀 있던 여성이 공장으로 진출함에 따라 여성문제는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리하여 여성의 사회활동은 1848년 2월 혁명 이후 남녀평등주의자인 생 시몽(Seint Simon)이 여성의 바지착용을 주장하면서부터 시작되었고, 또한 미국의 블루머(Amelia J. Bloomer)도 남녀동등권을 주장하며 블루머(Bloomer)를 착용하여 여성복의 개혁을 시도하였다.⁴⁾ 남·녀가 서로 다른 복장을 하는

1) 신상욱, 「서양복식사」(서울:수학사, 1994), p.296.

2) 백영자, 「서양복식문화사」(서울:경춘사, 1989), p.388.

3) 정홍숙, 「복식문화사」(서울:교문사, 1988), p.274.

4) 백영자, 앞의 책, p.390.

것은 불합리한것이라는 블루머(Bloomer)주의는 여자 복장의 개혁운동으로서 미국뿐만 아니라 서구 여러 나라들로 보급되었다.⁵⁾

1890년대를 중심으로 유럽예술은 발달된 교통과 통신 수단을 이용해서 국가간의 상호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국제성을 띠게 되었고, 생활상에 미가 도입되어 미의 대중화가 실현되었고 이에 따라 기능과 미에 대한 개념의 새로운 정립이 요구되었다.⁶⁾ 그리하여 아르누보는 기계문명 및 모든 전통적 요소에 대한 거부를 선언하고 감정과 추상적 형태를 기반으로 1890년경 출현하여, 세기말을 장식한 다양한 예술사조들과 시대정신을 반영하면서 1910년경까지 지속되었다.

아르누보 운동의 시효는 영국의 미술수공업(Arts & Crafts)운동에서 찾을 수 있다. 미술수공업 운동은 러스킨(John Ruskin, 1818~1900)과 모리스(William Morris, 1834~1896)의 기계부정에서 출발하였는데 그 배경에는 산업혁명과 1800년 이래 시작된 미학의 학설이 부정적으로 크게 작용하였다.⁷⁾

아르데코는 아르누보시대에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다가 20세기 초의 다양한 예술양식을 수용하면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타났다. 예술양식의 흐름속에서 1910년경부터 1930년경까지 장식예술 및 조형예술 분야에 영향을 준 아르데코는 1925년의 「현대 장식미술 및 공업기술 국제 박람회(International Exposition of Modern and Industrial Decorative Arts)」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아르데코의 명칭

도 여기에서 유래되었다.⁸⁾

또한 아르데코는 아르누보와 바우하우스 양식의 중간지대를 지배했던 독특한 장식 양식으로 당초에는 '1925년 양식'으로 불렸다. 이것은 모더니즘을 강조하고 있어서 그후 20세기의 사회생활 뿐만 아니라 패션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⁹⁾

20세기 초에 들어와 유럽에서 제국주의 경쟁이 더욱 심해져 갈 무렵 20세기의 새로운 성격의 복식 문화가 형성되었다. 이처럼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과 함께 의복에 특히 유행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는데¹⁰⁾ 이를 위해 전문 디자이너가 활약하기 시작하였다. 선구적 역할을 한 디자이너는 여자복장의 흐름을 지배한 뽀와레(Paul Poiret)와 비요네(Madeline Vionnet)이다. 물론 과거에 의복의 유행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현대만큼 사회각층에 이르는 경이적인 위력을 보여주지는 못하였다.

1905년 유럽은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일본에 대한 흥미가 고조되기 시작하였고 1910년대는 중국·일본과의 교역이 활발하여 유럽 여자복식에 동양적인 요소를 도입하는 계기가 되었다.¹¹⁾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은 그 기간이 비교적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정신적·물질적으로 큰 영향을 가져왔다. 전쟁에 군인으로 나간 남자들을 대신하여 여자들이 공장노동에 나갔으며 이러한 여자들의 사회적 진출은 여자복장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다. 스커트의 길이가 드디어 마루를 떠나 짧아지게 되었으며 테일러드 슈트로 정립되었고, 1917년경에는 보편화 되었으며 허리를 조이던 콜셋에서의 해방이¹²⁾ 이루어졌다. 제1차 세

5) 丹野 郁, 「西洋服飾發達史: 現代編」(東京:光生館, 1969), p.175.

6) 임영방, 「현대미술의 이해」(서울:서울대학교 출판부, 1983), p.130.

7) 정홍숙, 「근대복식문화사」(서울:교문사, 1989) p.32.

8) 위의 책, p.39.

9) 백은미, 「20세기 전반기 서양 여성 복식의 미적 특성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산업대학원, 1994), p.10.

10) 전혜숙, 「1900~1914년의 서양여자복식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1985), p.5

11) 신상욱, 앞의 책, p.321.

계대전 이후에는 19세기 이래의 민주주의·자유주의·합리주의 및 개인주의가 야만적 파괴와 비이성의 압제에 짓눌린 듯하였다. 따라서 사회문화적 여러 경향은 인간과 세계에 관한 비관론을 반영하였고 종교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지닌 정신사조가 나타났다.¹³⁾

1929년 뉴욕의 월 스트리트(Wall Street)의 주가 폭락으로 전세계는 생산침체, 은행파산, 상거래의 불경기로 실업자가 크게 늘어났으며 현실 세계로부터의 도피처로 영화가 각광을 받았다. 한편 의류산업에 있어서는 1938년 나일론, 아세테이트등 신소재가 개발되었고 지퍼(Zipper)가 발명되어 단추와 혹 대신 여밈에 사용되었다.¹⁴⁾

유럽의 정치적 불안과 1939년에 다시 시작된 제2차 세계대전으로 물자는 귀하고 가격은 폭등하여 경제는 침체상태에 빠졌으며, 모든것을 아끼고 절약하는 풍조가 생겨났다. 戰時에 의류산업도 큰 변화를 겪었는데 특히 미국은 패션의 일시적 중심지가 되어 많은 디자이너들은 의상실을 뉴욕 시내에 만들었다. 전쟁후 세계는 초 강대국인 미·소 대립을 축으로 하는 이념의 대립을 가져왔으며, 소비주의 풍조로 1회 용품의 사용이 증가하였고 이 시기부터 젊은이들은 패션에 대한 관심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III. 아르누보, 아르데코 양식의 특성

1. 아르누보의 특성

19세기 말 유럽에서는 과학의 발전으로 인한 생산 능력의 향상과 고성능 기계의 발명으로 인해 생겨난 기계 생산품에 반하여 공예의 본질에 입각

한 예술적 가치와 실용가치를 꾀하는 공예운동이 일어났다.

1860년부터 영국의 공예작가인 모리스에 의해 공예의 실용성과 사회성을 강조하여 새로운 미술수 공예 운동(art & crafts movement)이 일어나 새로운 예술양식인 아르누보 양식이 탄생되었다.¹⁵⁾ 이 양식은 역사주의의 반복이나 모방을 거부하고 자연의 모든 유기적 생명체 속에 있는 근원적인 조건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으로 율동적인 섬세함과 유기적인 곡선의 장식패턴을 펼쳐 나갔다. 그리고 물질적 풍요와 향락적 분위기를 드러내는 신흥 부르주아를 새로운 지배계급으로 한 부유층의 문화적이고 도회적인 양식이었으며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벨기에등을 중심으로 건축, 공예, 회화 분야에서 나타났다.

아르누보 예술가들은 전통적 역사주의의 반복이나 모방을 거부하고 동식물 자태에서 영감을 얻어 구불구불하게 波動하는 듯하고, 음악적으로 울동하는 듯한 섬세하고 유기적인 곡선을 장식 패턴으로 변형시켜 표현하였다. 또한 아르누보 스타일은 여성, 식물의 넝쿨, 꽃과 줄기 그리고 유기적인 생명체를 모티프로 하여 서로 교차되고 합쳐지면서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색채는 환상적이면서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위해 밝고 환한 파스텔조의 색상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또한 부드러우면서 은은한 느낌의 인상주의에 의한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2. 아르데코의 특성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곡선적인 추상성의 아르누보로부터 기계적이고 기하학적인 형태의 전환이 서

12) 정홍숙(1988), 앞의 책, p.296.

13) 차하순, 「서양사 총론」 (서울:탑구당, 1980), p.700.

14) 유송옥 외, 「복식문화」 (서울:교문사, 1996), p.223.

15) 백영자, 앞의 책, p.389.

서히 일어나기 시작함에 따라 아르데코의 모습이 점차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아르데코는 데스틸(De Stijl) 운동의 신조형주의(Neo-Plasticism)와 바우하우스의 기능주의에 자극을 받아 단순성 추구하고 직선적이고 구조적인 기능성을 특성으로 보여주게 되었다.

아르데코 양식은 모더니즘으로 대표되며 단순함과 고전적인 직선미의 특징은 대상의 형태를 단순한 기하학적인 형태로 환원시키는 큐비즘(Cubism), 현실의 대상을 재현시키는데 사용한 조형 요소들, 즉 점, 선, 면, 색, 형으로만 표현한 칸딘스키로 대표되는 추상주의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¹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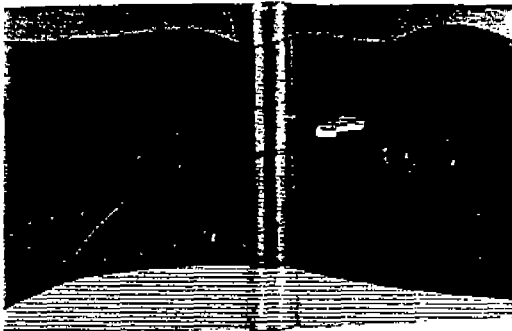
만약 큐비즘이 아르데코에 특징적인 형상을 부여하였다면 러시아 발레는 아르데코에 색채를 부여하였다. 러시아 발레는 새롭고 격동적인 색조인 현란한 오렌지, 에메랄드, 풍부한 금색, 은색과 함께 감각적이고 이국적인 시와 연극을 풍요롭게 했던 보석적인 색조도 소개하였다.¹⁷⁾ 이리하여 아르데코 시대의 색채에 있어서는 흑색, 원색에서 그 특징이 현저하게 나타나는데 색채의 특성 중 흑색의 미가 정착된 배경에는 흑인예술의 도입과 장식의 절제 속에서 절제된 부분을 강조하는 정확한 흑색을 도입하게 된 기능주의의 영향을 들 수 있다. 강력한

원색의 색상은 야수와 화가들(마티스(Matisse), 듀피(Dufy))에 의하여 새로운 색채 혁명으로 시작되었으며, 자연 그대로의 재현에서 탈피하여 주관적이고 자유로운 색의 사용으로 강도에 의한 표현을 시도하였다.

한편 1930년대 이후에는 수직선보다는 수평선을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디자인 분야에서 미국의 또 다른 중요한 공헌이었던 '유선형'의 개념을 따른 것이다. 유선형을 위한 선도적인 선구자는 'Norman Bel Geddes'로 그의 저서 「Horizon (1932)」를 통해서 유선형이 전국적으로 퍼져 나갔으며 중대한 관심사가 되었다.¹⁸⁾

3. 아르누보와 아르데코의 특성 비교

첫째, 소재면에 있어서는 두 양식이 비교적 비슷함을 알 수 있는데 아르누보 양식은 주로 꽃과 동·식물, 곤충, 여인, 요정등을 소재로 생동하는 듯하고 음악적으로 울동하는 것처럼 부드럽고 유기적인 선으로 표현하였고 아르데코 양식에서는 동·식물,



(그림 1) 책커버
(V. Arwas, 「Art Deco」, p.229)



(그림 2) 책커버, Van de Velde, 1895
(장폴뒤희, 「아르누보」, p.72)

16) 유송욱 외, 앞의 책, p.217.

17) 조규화 역, 「20세기 양식」(서울:수학사, 1993), p.86.

18) 위의 책, p.127.

여성, 기하학적 문양, 이집트 풍이나 페르시아 풍이 애호되었다.

둘째, 형태면에서 보면 아르누보 양식은 꽃과 식물의 줄기, 인체등을 율동하는 듯한 유기적이며 물결치는 곡선으로 표현하였으나 아르데코 양식은 동·식물의 모티프들을 단순하고 기계적인 기하학적 또는 직선적으로 표현하여 이 두 양식이 형태면에서 뚜렷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그림 1, 2)는 각각 아르누보와 아르데코 시대의 체크버로 아르누보의 곡선적인 특징과 아르데코의 절제된 기하학적인 선의 특징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셋째, 색채를 살펴보면 아르누보는 환상적이며 은은한 느낌의 환한 파스텔조이며, 아르데코는 강렬한 원색과 흑색, 금·은색으로 색채에 있어서도 두 양식이 서로 대조를 이루었다.

IV. 아르누보, 아르데코 시대 복식에 대한 분석

1. 실루엣(silhouette)

1890년대가 가까워지면서 Bustle의 모습이 없어지고 여성들의 옷이 단순해지기 시작하여 새로운 경향이 형성되었다. 허리는 더욱 꼭 맞게 하고 스커트는 부드러운 flare를 형성하기 위해 스커트를 세로로 절개하여 쪽을 붙이는 gored skirt가 고안되었다.¹⁹⁾ 이 gored skirt는 몸을 가늘게 보이게 할 뿐 아니라 곡선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서 아르누보 양식의 부드럽게 흐르는 유기적인 곡선의 아름다움과 일치되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1890년 말에는 치츄 스커트에 대한 관심이 소모로 전환되었고 허리를 강조하던 것에서 강조점이 가

슴으로 바뀌면서 가슴은 비둘기처럼 나오고 허리는 가늘게 조이고 힙은 나오게 하였다. 이런 모습은 옆에서 본 실루엣이 S자 모양이라 S-curve 스타일이라고 하였다. 이 스타일은 가슴을 더욱 크게 부풀리기 위해 corset부분에 frill을 달거나 수건을 말아서 집어 넣기도 하고 납작한 배와 가는 허리는 더욱 강조하기 위해 앞 중앙을 V자로 내려오게 하고 허리선도 밑으로 내려 재단하여 더욱 강한 S-curve의 굴곡을 형성하였다.

한편 미국에서는 깁슨(Gibson)이 고안해 낸 깁슨 걸 스타일(Gibson girl style)이라는 의상 스타일이 유행하였는데 이 스타일은 하이네크에 양 다리형이나 퍼프 소매로 하여 어깨를 넓히고 허리는 가늘게 조이며 스커트는 종형을 이루게 하였는데 이 모양을 몰시계(Hourglass)실루엣²⁰⁾이라고도 하였다.

1908년 뽀와레는 처음으로 폴셋을 없애면서 waist-line이 bust-line까지 올라간 empire style을 선보였다. 이 시기부터 아르데코 스타일이 점차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1910년경 뽀와레가 선보인 호블 스커트는 현대복식으로서의 황을 열었는데 그 형태는 무릎 위는 부풀리고 무릎부터 발목까지는 극도로 좁아지는 실루엣으로 여성들이 비틀거리면서 걷는다고 호블 스커트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또한 뽀와레는 1912년경 중앙 아시아에서 영감을 얻은 하렘 스타일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페그탑 실루엣(pegtop silhouette)으로서 힙부분은 풍성하고 아랫단은 주름을 잡은 하렘 트라우저(harem trousers)에서 따온 것이다. 비록 크게 유행하진 않았으나 서구 스타일의 상의와 착용하여 동양과 서양의 신비스러운 조화를 이루었다.²¹⁾ 같은 해에 뽀와레는 새로운 미나레 스타일을 발표하는데 이 스

19) 장순찬, "아르누보 패션"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84), p.62.

20) 신상옥, 앞의 책, p.306.

21) 백영자, 앞의 책, p.420.

타일은 스커트 도련에 철사를 넣어 전등갓처럼 둥글게 퍼진 over skirt를 호블 스커트나 하렘 바지위에 덧입는 스타일이다.²²⁾ 이 스타일은 또 램프셰이드 튜닉 스타일(lampshade tunic style)이라고도 하였으며 도련에 털장식을 하는 것이 유행하였다. 이국적인 동양풍의 유행과 함께 특히 일본문화의 영향으로 기모노 스타일이 선보이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여유있는 실루엣과 자유롭고 편안한 스타일로 직선적인 코트에 주로 사용되었으며 자수를 놓거나 목과 손목 근처에 모피 장식을 하였다.

1차 대전 후 여성들은 지위가 향상되고 경제적으로 독립하면서 개방적인 분위기가 복식에도 반영되어 수직적, 직선적인 실루엣인 보이쉬 스타일(boyish style)이 등장하였다. 이 스타일은 로우 웨이스트에 스커트 길이도 짧고 가슴은 납작하게 하고 허리 곡선을 완화시킨 박스(box)형으로 마치 소년같다 하여 보이쉬 스타일이라 하였다. 이 스타일은 1920년대 말까지 유행하였는데 1920년대 후반기에는 보이쉬 스타일에 여성적인 면을 가미시킨 가르송느(garconne)스타일이 등장하였다.

2. 색채(color)

아르누보 예술양식의 영향기에 나타난 복식의 색채 또한 환하고 부드러운 파스텔 색조인데 이러한 색채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두 종류의 얇은 질감의 옷감을 함께 사용하였다. 이러한 얇은 비치는 옷감을 겹쳐서 색조를 부드럽게 하는 방법은 아르누보풍의 엷은 파스텔 색상과 유연하게 흘러내리는 부드러운 drapery를 형성하였다. 주로 옅은 green blue, pink, violet, 오렌지 카키등 자연색을 중심으로 하여 짙은 갈색, 에메랄드, 자주와 같은 오리엔탈 컬러가 많이 사용되었다.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직물 디자인의 색채에 있어

서도 아르데코의 특징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옅은 색조에서 벗어나 검은색, 금색, 은색이 주류를 이루었고 러시아 발레와 추상 미술의 영향으로 원색계통과 그외에 파스텔 색조, 강한 핑크등의 다양한 색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원색의 색채를 디자이너 뽀와레는 인테리어 직물과 벽지디자인으로 이용하였으며 뽀와레와 소니아는 추상적이며 기하학적인 구성으로 직물을 디자인하였다. 그 밖에도 원색은 19세기 후반부터 생겨난 합성염료 산업의 발달로 대중화를 이룰수 있게 되었다.

금·은색은 아르데코의 냉정하고 모던한 현대적인 분위기를 잘 나타낼 수 있는 강렬한 색으로 금·은의 번쩍이는 광택은 아직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아름다움을 보여주었다. 실제로 패션 디자이너들도 의복의 소재로 금속과 광택있는 소재를 사용하여 신문명의 기술과 새로운 시대의 동경을 아름답게 표현하였다.

3. 직물과 문양(textile & pattern)

아르누보 시기에는 S-curve 곡선의 아름다움을 살리기 위해 부드러운 재료를 많이 사용하였는데 특히 lace, chiffon, organdy등 부드럽고 얇게 비치는 옷감을 애호하였다. lace는 이브닝 드레스에 전체를 꾸미는데 사용되기도 하였는데 그 이유는 lace 자체가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것의 상징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옷감에는 꽃과 식물무늬의 수를 놓거나 애플리케를 하기도 하였고 얇고 호화로운 옷감을 이용하여 정식적인 detail과 trimming을 가하였는데 특히 frill, ruffle, pleats등을 애용하였다.²³⁾ 이외에 조화, 리본장식, 보석, 깃털, 모피가 의복, 구두, 모자, 악세서리등을 장식하는데 사용되었다.

직물은 영국에서 가장 발달하였는데 1880년대

22) 신상욱, 앞의 책, p.323.

23) 장순찬, 앞의 글, p.70.

부터 런던에서는 오리엔탈풍의 상품과 함께 일본의 견, 린넨, 나염한 목면등을 전시 판매하였다. 아르누보 직물 패턴 디자인은 주로 꽃을 주제로 하였는데 꽃, 잎사귀, 얽힌줄기등을 모티프로한 흐르는 듯한 곡선, 사실적인 고전적 꽃문양, 부케모양등이 있으며 이러한 패턴의 반복구성은 많은 직물에 사용되었다.

1910년대의 디자이너 뵘와레는 옷감 사용에 있어서 여성의 육체의 곡선을 강조하여 부드럽게 흘러 내리는 스타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silk, chiffon, lace등을 사용하였으며 이와함께 면, 벨벳, 모피, 울 등의 소재도 사용하였다. 한편 직물에 뛰어난 감각을 소유했던 샤넬은 1916년 이전까지만 해도 속옷에만 쓰인 저지(jersey)를 가지고 옷을 만들기 시작하였고 그 후 니트를 생산케 하기도 하였다.²⁴⁾ 또한 인견산업 발전으로 인해 생산된 레이온은 스타킹으로 여성들에게 널리 보급되었다.

러시아 발레단의 영향으로 호화롭게 짜여진 옷감의 유행과 화학기술의 발달로 광택나는 옷감이나 금속성 재료를 이용하여 디자인 하기도 하였는데 카롯여사는 직물을 빛나게 하는 라메실을 랑뵁은 금은사의 직물과 호화로운 자수를 사용하여 옷감을 화려하게 하였다. 이러한 금속 소재와 화려한 직물은 아르데코의 모던한 이미지를 잘 나타내고 있다.

아르데코의 직물 디자인의 특징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면 아르데코 직물디자인은 현대적인 디자인 경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추상성을 강조한 대담한 기하학적 모티프와 아르누보의 사실적인 꽃은 양식화 되었고 동양의 에스닉 모티프가 첨가되었다.²⁵⁾ 이러한 직물디자인은 화가들의 직물 디자인 참여와 뵘와레의 직물 스튜디오 포티트 유진(Petite Usine) 건립으로 더욱 발전하였다. 아르데코 이미지를 가진 새로운 감각의 대표적인 직물 디자이너로는 소니아 드로이네와 라울듀피가 있다.

소니아는 1920년부터 1931년에 걸쳐 직물디자인을 하였는데 소니아의 직물디자인의 특징은 독자적이며 추상 기하학적 디자인과 강렬한 색조에 있다. 야수와 화가의 한 사람인 듀피의 직물디자인은 꽃, 전원, 바다를 모티프로 하여 밝고 화려한 색조와 유연한 선에서 그 특성을 찾을수 있다.

아르데코 이미지를 가진 새로운 감각의 대표적인 직물디자이너로는 소니아 드로이네와 라울듀피가 있다. 소니아는 1920년부터 1931년에 걸쳐 직물디자인을 하였는데 소니아의 직물디자인의 특징은 독자적이며 추상 기하학적 디자인과 강렬한 색조에 있다. 야수와 화가의 한 사람인 듀피의 직물디자인은 꽃, 전원, 바다를 모티프로 하여 밝고 화려한 색조와 유연한 선에서 그 특성을 찾을수 있다.

이와같이 아르데코 직물의 특징은 금속소재를 사용한 새로운 재질, 단순하고 간결한 기하학적 패턴, 대담한 구성, 그리고 강렬한 색조라고 할 수 있다.

V. 현대패션에 나타난 아르누보, 아르데코 양식

1. 실루엣(silhouette)

아르누보와 아르데코 양식이 현대 패션에 미친 영향 중에서 먼저 실루엣을 작품 중심으로 살펴보면 아르누보 시대의 S-curve 스타일, 아우어글래스 실루엣, 벨형의 스커트와 아르데코 시기의 엠파이어 실루엣, 호블 스커트, 미나레 스타일, 기모노 스타일, 하렘 스타일, 보이쉬 실루엣이 현대 패션에 모두 다양하게 나타나 영향을 받았음을 작품을 통해 알 수 있었다. 가슴과 hips를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S-curve 스타일은 주로 이브닝 드레스에서 보여지며 동방풍의 이국적인 미의 기모노 스타일은 현대

24) 이소영, "1920년대 서양여성 복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1987), p.45.

25) 이원숙, "아르데코 직물디자인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5), p.69.



(그림 3) Jacques Fath, A/W, '95-'96
(「Fashion News」, p.93)

(그림 4) Lanvin, S/S, '94
(「Fashion News」, p.26)

(그림 5) Karl Lagerfeld, S/S, '96
(「Collections」, p.91)

(그림 6) John Galiano, A/W, '95-'96
(「Fashion News」, p.12)

에서 일본 문화의 영향으로 매년 선보이고 있다. 또한 헝이 풍성하고 아랫단에 주름을 잡은 하렘 스타일은 활동하기 편안하여 현대에는 스포츠 의상이나 실내복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아르테코 양식의 특징인 직선적인 보이쉬 스타일과 기계의 완벽성과 현대를 특징짓는 속도감을 표현하는 유선형의 실루엣은 기능적이고 활동적인 현대 패션과 여러면에서 일치하는 특성으로 의복의 여러종류와 디테일에서도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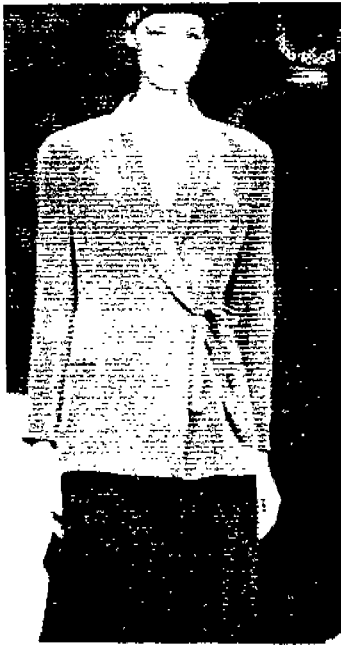
(그림 3)에서는 어깨는 넓히고 허리는 가늘게 조이며 스커트는 종형을 이루게 하는 아우어글래스 실루엣을 볼 수 있는데 이 실루엣은 아르누보 시대에 유행한 의상 스타일이다. 상의에 모피 소재의 케이프를 걸쳐 더욱 어깨를 강조하였으며 무릎 길이의 스커트는 안쪽에 바깥으로 팬치는 페티코트를 입어 더욱 풍성하게 표현하였다. Chloe의 '94 S/S 작품인 (그림 4)에서는 웨이스트 라인이 바스트 라인까지 올라간 앰파이어 스타일을 볼 수 있으며 가

슴선까지 넓게 파인 네크라인과 바스트 라인의 꽃잎 장식이 여성스러움을 잘 나타내고 있다.

(그림 5)를 살펴보면 무릎위는 부풀리고 발목까지는 극도로 좁아지는 항아리 모양의 실루엣으로 1910년경 헵와레가 선보인 호블 스커트의 실루엣과 매우 유사함을 볼 수 있다.

(그림 6)의 의상은 '95~'96 A/W에 발표한 John Galiano의 작품인데 여유있는 스타일과 풍성한 실루엣에서 아르테코 시대에 유행한 코트형의 기모노 스타일의 영향을 받았음을 짐작케 한다.

여성들의 지위가 향상되고 경제적으로 독립하면서 등장하였던 직선적인 실루엣의 보이쉬 스타일은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대에는 다양한 형태로 여러 종류의 의복에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직선형의 실루엣은 겨울철 코트 디자인에 많이 활용되어 나타났다. (그림 7)에서 살펴보면 아르테코 시기에 유행한 보이쉬 스타일과 매우 유사한 모습으로 머리에 꼭맞는 모자와 직선형의 자



(그림 7) Cerruti, S/S, '94
(「Fashion News」, p.75)



(그림 8) Valentino
Garavani, S/S, '94
(「Fashion News」, p.25)



(그림 9) Issey Miyake, AW,
'96-97
(「Fashion News」, p.81)

켓 그리고 스커트를 찾아볼 수 있다.

2. 색채(color)

현대 패션에는 각 시즌별로 유행하는 색이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강하게 한 색채만이 나타나기 보다는 여러가지의 색채가 함께 유행하며 보여진다. 그 중에서 현대 패션에 나타난 아르누보와 아르데코 양식의 색채적 요인에는 크게 아르누보의 환하고 부드러운 파스텔 색조와 원색, 검은색, 금·은색이 특징인 아르데코의 색채로 살펴볼 수 있다.

(그림 8)에서는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환한 느낌의 색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연한 갈색과 살색을 바탕으로 연한 핑크와 조화를 이루어 따뜻함을 전해

준다. 또한 얇은 천의 사용으로 포근함과 부드러움을 더욱 느끼게 한다. 옅은 파스텔 색상과 이러한 환하고 부드러운 색채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얇은 질감의 옷감을 겹쳐서 사용하였던 아르누보 영향기에 나타난 복식의 색채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림 9)은 동양적인 경향, 즉 기모노의 평면적이고 기하학적인 선에서 출발한 일본 디자이너²⁶⁾ Issey Miyake의 작품으로 강하고 단순한 형상을 적절히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한 빨강색, 노랑색, 주황색등의 원색과 검정색을 테두리 색으로 사용하였다. 머리부분을 둘러싼 원형의 장식과 장갑 그리고 무릎 부위의 디테일적인 요소들이 색채와 적절히 어우러져 사이버적인 현대미를 잘 나타내고 있다.

26) 신혜영, "Paul Poiret의 작품과 현대패션에 나타난 동방풍과의 상관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1995), p.41.

3. 직물과 문양(textile & pattern)

곡선을 통하여 자연의 유동적 형태들을 표현하고 그것들을 통해 자연의 창조활동의 무한한 과정을 효과적으로 표출할 수 있다고 믿었던 아르누보 양식은 직선보다는 소용돌이 치고 서로 교차하는 곡선이 주로 사용되었는데 이러한 아르누보의 특징은 현대 직물의 장식 문양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프리트나 자수, 레이스 장식에도 이러한 유기적인 곡선과 끊임없이 이어지는 선장식이 나타난다.

한편 아르누보 시대에 의상을 화려하게 꾸밀때 사용하였던 모피 장식은 현대 패션에 절대 빠지지 않는 소재로 등장하여 의상 전면에 사용되거나 목둘레나 소매 그리고 스커트 도련등에 부분적으로 사용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한편 큐비즘에서 이끌어낸 기하학적 형태가 특징인 아르데코 양식은 꽃이나 동물 및 인간의 형상을 모티프로 더욱 단순하고 추상적인 형태로 나타냈는데 복식에서도 기하학적인 무늬와 추상화된 식물 및 꽃 문양을 찾아볼 수 있다. 기하학적 패턴과 함께 아르데코 양식에서 주요 소재로 쓰인 이국주의적 요소 또한 현대 의상에

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동양의 비단을 연상케 하는 재질을 사용하거나 동양적 모티프인 새와 식물을 수놓아 이국적인 느낌을 표현하였다.

(그림 10)에서는 추상화된 선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곡선으로 표현된 상체와 주름을 잡아 흘러내리는 듯한 느낌의 스커트가 아르누보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림 11)은 '96 S/S 컬렉션의 Christian Lacroix 작품으로 상의에 장식된 자수와 스팡클로 꽃의 모티프를 표현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스커트는 화려한 스트라이프 무늬의 광택나는 소재를 사용하여 아르데코적인 특성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림 12)의 의상은 색채에서 상의의 빨강색과 금사로 짜여진 직물로 만든 바지 그리고 단추, 신발, 악세서리에서 보여지는 금색의 사용이 아르데코의 야수파적인 색채 구성과 반짝거리는 금·은색의 광택을 특징으로 하는 아르데코의 영향을 받은 현대 의상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림 10) Krizia, S/S, '94
(「Fashion News」, p.120)



(그림 11) Christian Lacroix, S/S, '96
(「Collections」, p.50)



(그림 12) Celine, S/S, '94
(「Fashion News」 p.77)

VI. 결 론

아르누보 양식은 1890년부터 1910년 까지의 예술 양식으로 '벨 에포크(Bell Epoque, 좋은시대)'와 '세기말'이라는 용어로 대변된다. 러스킨과 모리스의 기계부정에서 출발한 '미술 수공예 운동(Art & Crafts Movement)'에 기원을 두었는데 이 운동은 대중을 무시하고 실용성을 경시하여 대다수 민중으로부터 격리되었다. 이러한 아르누보 양식의 전반적인 형태는 직선보다는 소용돌이 치고 서로 교차하는 곡선이 주로 사용되었다는 데에 특징이 있으며 색채는 인상주의에 의해 형성된 부드러우면서도 환한 파스텔조가 주조를 이룬다.

아르데코 양식은 20세기 초 수공예적인 것에 의해 나타나는 연속적인 곡의 선율을 강조하여 공업과의 타협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아르누보에 반하여 합리성과 단순성 그리고 구조적 기능성을 요구하게 되면서 아르데코가 태동하게 되었다. 아르데코의 이상이 실현된 것은 1920년대로 1차 세계대전 이전인 1914년 까지는 19세기 말부터 서구 사회에 나타난 '세기말'적 경향이 계속해서 지속됨으로써 동방의 이국주의나 화려한 장식이 강하게 남아 있었다. 그러나 1차 세계대전 이후 데스틸(Destijl) 운동과 바우하우스(Bauhaus) 운동이 성립되어 신조형주의와 기능주의에 자극을 받아 기능성과 단순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가속화되었다. 아르데코는 기하학적 형태가 두드러진 특징으로 단순함과 추상적 경향을 띠며 유선형의 특징도 함께 나타낸다. 색채는 야수주의와 러시아 발레로 더욱 확산된 오리엔탈리즘에 기인하여 원색, 금·은색, 검은색의 강렬하고 화려한 색을 특징으로 한다.

아르누보와 아르데코의 각각 이러한 특징들은 화화, 조각, 공예, 건축, 복식등 예술전반에 걸쳐 나타났다.

아르누보 영향기의 복식은 소매를 과장되게 부풀리고 허리를 조인 아우어글래스 스타일과 가슴과

hips를 강조한 S-curve style의 두 형태로 구분되며, 아르데코 영향기의 복식은 콜셋을 제거한 자연스러운 실루엣의 엠파이어 스타일과 무릎위는 부풀리고 무릎부터 발목까지는 극단적으로 좁아지는 호블 스타일, hips는 풍성하고 아랫단은 주름을 잡은 하렘 스타일, 호블 스커트나 하렘바지 위에 램프처럼 등골게 퍼진 over skirt를 덧입는 미나레 스타일, 여유있고 풍성한 실루엣의 기모노 스타일, 직선적인 실루엣의 보이쉬 스타일로 구분된다.

이러한 복식에 영향을 준 아르누보, 아르데코 양식의 요인으로는 크게 실루엣, 색채, 직물과 문양으로 알아볼 수 있다.

첫째, 실루엣에서 살펴보면 아르누보 시대의 아우어글래스 스타일과 벨형의 스커트가 현대 패션에 주로 영향을 미쳤으며, S-curve 스타일은 굴곡이 완화된 스타일로 나타났다. 아르데코 시대의 엠파이어 스타일, 호블 스커트, 미나레 스타일, 기모노 스타일, 하렘 스타일, 보이쉬 스타일 모두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그중에서 보이쉬 스타일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둘째, 색채에서는 아르누보 색상의 파스텔 색조와 원색 계통과 검은색, 금·은색이 특징인 아르데코의 색채가 직물 디자인에 반영되어 현대 패션의 색채에 다양하게 연출되고 있다.

셋째, 직물과 문양에서는 아르누보 양식의 주요 모티프인 꽃과 식물, 유기적인 곡선 그리고 아르데코 양식의 기하학적 패턴과 이국주의적 모티프가 각각 현대 직물 패턴과 디자인에 모티프로 사용되었으며 금은사 직물, 금속성 소재, 레이스, 자수, 모피, 조화, 깃털등이 복식의 여러 부분에서 나타났다.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에 걸쳐 나타난 아르누보, 아르데코 예술양식은 서로 각각 대조되는 특징으로 현대 패션뿐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패션에도 영향을 미칠것이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 백영자. 「서양복식문화사」. 서울: 경춘사, 1989.
- 백은미. “20세기 전반기 서양 여성 복식의 미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1994.
- 신상옥. 「서양복식사」. 서울: 수학사, 1994.
- 신혜영. “Paul Poiret의 작품과 현대패션에 나타난 동방풍과의 상관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1995.
- 유송옥 외. 「복식문화」. 서울: 교문사, 1996.
- 이소영. “1920년대 서양 여성 복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1987.
- 이원숙. “아르데코 직물디자인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5.
- 임영방. 「현대미술의 이해」.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3.
- 장순찬. “아르누보 패션.”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84.
- 전해숙. “1900~1914년의 서양 여자 복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1985.
- 정홍숙. 「근대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1989.
- 정홍숙. 「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1988.
- 조규화 역. 「20세기 양식」. 서울: 수학사, 1993.
- 차하순. 「서양사총론」. 서울: 탐구당, 1980.
- 丹野 郁. 「西洋服飾發達史: 現代編」. 東京: 光生館, 1969.
- Arwas, Victor. Art Deco. New York: Harry N. Abrams, Inc., 1986.
- Fashion News. Vol.20 '94 S/S Paris/Milan.
- Fashion News. Vol.27 '95~'96 A/W Paris / Milan.
- Fashion News. Vol.35 '96~'97 A/W Paris / Milan.
- Gap Press Collections. Vol.5 '96 S/S Paris / Milan.